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신재형	학번	
휴대전화		이메일	Jhshin2496@gmail.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뉴욕주립대(SUNY Albany), MPA	(국가) 미국
기간	2016. 1. 1. ~ 2016. 12. 23.	[귀국일:2016년12월23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7년 2월 22일

신청인 : 신재형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2015년 겨울, 유난히 바빴던 KDI 가을학기를 마치고 2015년 말 뉴욕 JFK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뉴욕, 특히 올버니 지역은 1월 평균기온이 영하 12도에 육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꺼운 외투를 잔뜩 준비해서 갔다. 그러나 그 해 이상 고온 현상으로 영상 10도 이상의 기온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어 두꺼운 옷은 전혀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얇은 옷을 당장 준비하지 못하여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다.

올버니 지역은 서경 73.5도 북위 42.4도에 위치하여 북한의 나진선봉 경제구역과 비슷한 위도에 위치하고 있다. 비교적 4계절이 뚜렷하여 한국인이 거주하기에는 좋은 기후이며, 여름에는 38~4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한국의 기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뉴욕 주 전체로 볼 때는 미국 내에서 물가수준이 높은 편에 속하지만, 올버니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물가수준이 그리 높지는 않은 편이다. 주도(capital of New York)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아 한국으로부터 직항 노선이 없고, 미국 국내선도 미취항 지역이 많다. 따라서 한국으로부터 오는 방법은 Detroit, Chicago 등 미국 내 허브공항을 경유하여 항공편으로 오거나, 뉴욕 JFK 공항으로 입국하여 육로(메가버스, 한인콜택시 등)를 이용하여 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미국 내 운전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렌터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한국과 미국의 운전방식 차이로 인해 그다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다. JFK에서 육로로 이동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검색을 통하여 미리 예약을 하고 오는 편을 추천한다. (한인 콜택시 이용 시 약 400~600불 정도 소요)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뉴욕주립대(SUNY Albany)는 KDI 연계학교로 학교 수준은 한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행정학 분야는 Rockefeller College 소속으로, 전미 랭킹 6위(US news지, 2008년 기준)에 랭크될 정도로 그 우수함을 인정받고 있다.

MPA 과정의 구성원은 매우 다양하다. 대부분은 미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들어온 학생들이나, 우리와 같이 국제학생들 및 위탁교육생들도 상당수 있다. 특히 certificate 과정 운영을 통해 정식 학위과정은 아니지만 직무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인원들도 상당수 수강하고 있어 주정부 공무원들과 교류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내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미국 행정학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배우는 과정을 많이 접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적응하기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익숙해지면 KDI 대학원 수업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주전공 (core) 과목의 경우 한국에 비해 수업 규모가 작은 편으로 토론식 참여수업 및 발표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 그룹 과제를 많이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사고를 전체로 아우르는 방식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하는 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기관 근무자들도 많이 근무하는 관계로 대부분의 수업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수강신청은 KDI처럼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KDI 1+1 과정의 경우 KDI에서 수강한 39학점 중 6과목이 transfer되고(현지에서 24학점 인정), 현지에서 25학점을 수강하여 총 49학점 수강을 완료하여야 졸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과목은 core 과목과 elective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KDI 과정의 경우 core 과목을 모두 수강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목 선택의 폭이 매우 좁은 편이다.

KDI의 core 과목인 AMPP, QM은 각각 PAD503, PAD505로 인정되어 waive를 받을 수 있고, 그 외 500, 501, 504, 506, 507, 508, 509의 7과목을 더 들어야 한다. 이를 제외하면 실제로 elective로 들 수 있는 과목은 한 개밖에 남지 않는다. (500~506은 각 4학점, 507, 508은 2학점, 509는 1학점) 따라서 학사일정을 그대로 따라가면 크게 졸업요건에 위배될 사항이 발생할 일은 없으며, 선택과목만 잘 고르면 큰 어려움이 없다.

선택과목의 경우 반드시 행정대학원 내 개설과목을 들을 필요는 없으며, 타 대학 개설 강좌를 수강하여도 무방하다. 본인의 경우 경제학과 대학원에서 개설된 박사과정 과목을 수강하였으며, 이 경우 3학점 수강이 되지만 행정대학원 졸업 요건은 학점 수가 아닌 과목 수로 평가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오히려 등록금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뉴욕주립대의 경우 학점 단위로 등록금을 산출하고, 12학점이 등록금 상한으로 운영되고 있음)

논문대체 과목의 경우 PAD509로 1학점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이 과목은 1년 동안 수강했던 과목 중에서 제출했던 과제 및 자신의 향후 계획 등을 종합하여 essay를 한 편 제출하는 과목으로, 학기별 과목을 충실히 이수했다면 큰 어려움 없이 완수할 수 있다. 다만, KDI처럼 친절하게 학교 측에서 스케줄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잘 챙겨야 한다. 특히 가을학기는 귀국 준비 때문에 바쁜 관계로 시간을 두고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올버니 지역의 경우 townhouse 형태로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처럼 고층 건물은 거의 없고, 2~3층 목조 건물에 카페트 바닥이 대부분이다.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카페트를 제거해 달라고 하면 제거해 주는 건물도 있다고 한다. 특히 아토피 등 피부염을 앓고 있는 경우 카페트에 대한 사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가계약을 한 후 현지에 도착하여 정식계약을 작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다만, SSN(Social Security Number)나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일반 학생이 아닌 재정보증을 받고 있는 유학생이라는 사실을 밝혀 줄 필요가 있다. (본인의 경우 인사혁신처에서 발급받은 재정보증서를 사전에 이메일로 송부하여 렌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주지시켰음)

학군이 좋고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는 Guilderland의 경우 2bed 기준 약 1,100~1,300불 수준

이나, 자녀가 없거나 어려서 학군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 downtown 캠퍼스 쪽으로 조금 이동하면 900~1,100불 수준으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월세에 포함되는 비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올버니 지역의 경우 겨울에 매우 춥고 난방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난방비가 포함되지 않은 집을 선택하는 경우 300불 이상 추가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음식의 경우 downtown 캠퍼스 근처에 다양한 국적의 음식점이 많이 있다. 본인의 취향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으며, 한인마트 및 한국음식점이 많지는 않지만 적당한 규모의 가게들이 있고 뉴저지에 미국 동부 최대의 한인마트가 있어 (편도 약 2시간 30분 소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지역 내 공공도서관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 배우자 및 자녀가 이용하기에 좋은 환경이다. 특히 커뮤니티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면 도서관에 방문하여 지역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지역 소방서에서 주기적으로 지역공동체 구성원 초청행사를 하기 때문에 미국의 진면목을 느껴보고 싶다면 한 번쯤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GMP 2년차는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시작하지만, 그 끝에서는 '매우 만족' 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학사와 관련해서는 KDI에서 1년 간 영어로 수업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대략 봄학기 중간고사쯤 되면 어느덧 완벽하게 적응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KDI에서와 같이 과목 선택에 대한 자유가 많이 없기 때문에 행정학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경우 약간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다.

뉴욕주립대의 경우 한국인 교수(정익재 교수님)가 계셔서 초기 정착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다른 과정(2년 장기유학, 1+1 연계과정 등)으로 유학 중인 한국 학생들이 많아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학사 일정에 대해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고 있어 KDI처럼 일일이 챙겨주지는 않기 때문에 본인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일정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므로, 연간 일정을 초반에 파악한 후 중요한 일정은 본인이 스스로 챙겨야 한다. 특히 이민 관련 서류나 각종 생활에 필요한 서류작업 등은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촉박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 실수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관공서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준비할 것을 권한다.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본인도 그랬지만, 비자 발급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출국 전에 걱정을 많이 했었다. 입학사정위원회가 예전에는 9월경에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10월 심지어는 11월에도 개최되는 경우가 있어서 한국에서 비자를 받는 데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다. 따라서 입학 통보

를 받게 되면 즉시 SEVIS 번호가 기재된 i-20 사본을 먼저 요청해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야 한다. 합격 통보 이후 i-20 원본을 받기까지는 대략 2주 이상이 소요되므로, SEVIS 번호를 미리 알아두어 주한 미국대사관에 비자인터뷰 일정을 예약하는 것이 좋다.

최초 출국의 경우 비자만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미국 최초 입국 시에는 최근 테러 위협 등으로 이민국 심사가 까다로우나, i-20, 여권, 비자만 있으면 질문 몇 가지만 하고 들어갈 수 있다. 세관 심사의 경우 음식물 등은 반드시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주의할 점은 미국에서 캐나다, 멕시코 등 다른 나라를 여행다닐 경우가 많은데, 이때 i-20에 국제학생센터(ISSS)에서 미리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통상 3월 봄학기 때 사인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ISSS에서 미리 사인하는 일정(대략 1주일)을 잡아 주기 때문에 이 때를 이용하여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서명이 없으면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출국하는 것은 자유로우나, 재입국 시 상당한 고초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동 서명은 한 번 받으면 1년간 유효하므로, GMP 과정의 경우 한 번만 받으면 자유롭게 인근 국가를 드나들 수 있다.

또한 미국 동부의 경우 대부분의 고속도로가 유료도로이므로 한국의 하이패스 개념인 *ez-pass*를 신청하여 다니는 것이 편리하다. 우리 나라의 선불 하이패스카드 개념으로 보면 되며, 현금 지급보다 할인율이 꽤 크고 일일이 동전 계산할 필요가 없어 정착 초기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 유학생은 미국 내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deposit*을 요구하는 경우가 꽤 많다. 특히 아파트, 인터넷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보증금 식으로 요구하는데, 추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 돌려주는 하지만 수표 형식으로 되돌려 주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은 Bank of America 계좌를 개설하고 돌아오기 전에 폐쇄하게 되는데, 계좌를 열어둘 여유가 있다면 수표 현금화를 위해 몇 달 정도 남겨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에 돌아와서 미국수표 추심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 대략 75% 수준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 다만, 미국 은행들은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하지 않으면 계좌유지 수수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손익을 잘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KDI도 좋지만, 미국 생활도 자금 여유와 미리 준비하는 자세만 있으면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정착 초기에 한국과 미국이 차이가 있음을 빨리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에서처럼 일처리가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인터넷, 택배 등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즐거운 미국 생활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정상수	학번	
휴대전화		이메일	purma783@gmail.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SUNY at Albany, MPA	(국가) 미국
기간	2015.12.22 ~ 2016.12.24	[귀국일: 2016년 12월 26 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7년 2 월 13 일

신청인 : _____ 정상수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올버니 지역은 뉴욕시에서 3시간 가량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뉴욕시 공항으로 입국 시 비행 시간과 이동시간을 포함해서 만 하루가 걸린다는 느낌이었다. 올버니 지역이 춥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2015년 겨울은 유난히 따뜻했고 100년만의 이상기온이어서 기후에 관해 운이 좋은 편이었다. 크리스마스 기간에 뉴욕시에 잠깐 머물렀는데 사람들이 반팔을 입고 다닐 정도로 따뜻한 기온이었다(영상 15~20도 정도). 이후에는 다시 추워졌지만 예년만큼 춥지는 않았다는 걸 봐서 매년 연도별 편차가 어느 정도 있는 듯 했다. 숙소는 Deer Valley Apartment에서 1년간 머물게 되었는데 한국 유학생으로부터 가격이 괜찮으면서 쇼핑물 등이 가깝기 때문에 지내기 편하다 하여 선택하게 되었다. 나중에 들어보니 올버니 지역 말고도 근처 인근도시(트로이 등)에서 통학하는 사람도 꽤 되는 듯 했다.

1+1 과정은 KDI 과정을 마치고 바로 출국 하여 올버니 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상당히 빠빠한 편에 속한다. 또 도착하자마자 크리스마스 휴일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학교생활에 바로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편인 것 같다.

겨울은 4월 정도까지 춥다는 느낌이었고 5월부터 8월까지의 우리나라의 봄 가을날씨에 해당하는 쾌적한 날씨였다. 한국은 여름에 소나기가 늘 왔었는데 올버니 지역은 여름에 비가 거의 오지 않아 특별한 느낌이었다. 겨울이 춥긴 하지만 거의 실내에서 지내고 난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내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편이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KDI와 연계되어 있는 Albany의 프로그램은 MPA인데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으로 행정학 석사 전공으로 수강을 하는 미국인들은 공무원들이 많은 편이다. 기본적으로 뉴욕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행정학 이론과 행정사례에 대한 교육이 중심이며 이와 함께 엑셀, 프리젠테이션 기초와 같은 실무적인 내용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거의 팀 수업 위주였으며 발표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는 편이었다. 수업내용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얻어가기보다 수업 및 발표에 참여하고 팀별 과정을 수행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을 직접 만들어간다는 느낌을 받았다. 따라서 수업이나 팀별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면 교류도 많이 하게 되지만 수업에서 소극적이면 과정 자체가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학생들의 지식 요구 수준을 크게 만족시킬 순 없다고 보인다.

수업시간에 교수님들의 강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보다는 동료들의 피드백이 더 유용한 경우가 많았다. 같이 수업을 진행한 동료 중 발표능력 등이 뛰어난 미국인들로부터 프리젠테이션 요령 등에 관해 배울 점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수업을 전반적으로 평가해보면 전문지식의 습득이나 활용 가능한 지식의 습득 측면에서는 크게 만족스럽지는 못했던 것 같다. 너무 이론적이거나 기초적인 내용 또는 한국의 직장생활과 거리가 먼 미국 중심적인 내용이 많은 편이기 때문이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KDI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수강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피로 \$10,000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코어과목 위주로 수업을 하였고 다른 선택과목은 거의 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선택과목은 1과목만 수강하게 되었다. 코어과목은 행정학 이론과 관련된 내용으로 치우쳐진 경향이 많고 실무적인 수업은 좀 부족하였던 것 같다. 코어과목 위주로만 수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선택과목은 개인적으로 경제학에 관심이 있어 경제학과의 계량경제학 과목을 수강하였다. 석사과정이지만 박사과정 수강신청도 가능하였으며 졸업 사정 시 포함 가능하다고 하여 선택하게 되었으며, 학비도 CREDIT별로 계산되는데 MPA과정이 있는 록펠러 대학보다 경제학과 대학원의 수업 CREDIT이 하나 적어서 적은 학비를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봄학기는 코어과목만 4과목을 들었으며 가을학기에 코어 3과목과 선택 1과목을 들었다. PAD 500과 PAD 506이 행정학 이론과 관련된 과목으로 성격이 서로 유사하며, PAD 507과 PAD 508은 미국 공무원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과목이다. PAD 504는 기초 엑셀과 엑세스를 다루는 수업이다. 경제학 원론과 통계원론에 해당하는 코어과목은 KDI과정에서 TRANSFER를 통해 면제 받을 수 있었다. 거의 모든 수업이 팀을 활용하여 수업하였기 때문에 토론문화를 배우고 의견을 교환하는 방법을 연습 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팀별 모임에는 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했으며 보고서를 잘쓰기 위해서는 영어실력도 중요하지만 사고의 깊이 등 다른 요인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팀 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제시를 하는 과정에서 보람도 제법 느낄 수 있었다. 다만, 전문적인 수준의 영어실력은 단기간에 극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도 꽤 있었는데 그 때마다 주변 동료들의 도움으로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아파트는 Deer Valley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데 월 \$1,000달러 수준에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어 주변 시세 보다 약간 저렴한 편이었다. 위치가 길더랜드 지역에 속해 있으며 쇼핑몰 등이 가까워 생활하며 지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공용세탁기를 쓰기 위해 관리실을 매번 방문해야 된다는 점이 번거롭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던 것 같다. 카페트 생활이 필수이다 보니 그 부분은 잘 적응이 안 되었던 것 같고 청소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음식은 주로 한국, 일본 등 아시안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식재료를 근처 대형슈퍼마켓(BJ, 월마트 등)에서 저렴하게 구입하여 집에서 가족과 함께 요리를 자주 하였던 것 같다. 미국 음식의 경우 햄버거나 고기 종류가 많은데 하루에 두 번 이상 먹기가 부담스러웠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1년간 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영어공부도 하면서 미국인 친구와 어울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가 팀 활동이다 보니 영어학습과 다른 사람의 또다른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예를 들어, 가을학기 PAD 506수업을 하면서 기말 팀 과제로 특정집단이나 조직을 선정하여서 그 조직내부에 존재하는 리더십 부재 문제를 평가하고 발전적인 제언을 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는데 이를 위해 미국 내 그리스 교회를 직접 팀원 들과 함께 방문하여 조직의 문제점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평가 과정에서 관련된 논문도 여러 편 읽게 되었으며 논문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팀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과정에서 의견교환방식 및 팀으로 행동하는 방식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미국인들이 영어는 훨씬 잘하지만 한국인의 논리성과 다양성으로 적극적으로 팀 의사토론에서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다른 팀원들로부터 인정도 받을 수 있어 보람도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미국에서의 1년은 미국에서의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을 배우고 느끼기에 모자라지는 않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미국 사람들의 문화나 사고방식이 우리나라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으며 1년간 지내면서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생활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학교 생활과정에서 지식을 얻기도 하였지만 그것 보다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과정을 통해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태도 등 다른 나라의 문화를 많이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뭐든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는 편인데 미국의 경우 1주일 또는 1달 정도 여유를 주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여유 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다.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비자는 대행사 없이 직접 발급 받았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유학을 가고 정부가 직접 보증을 서기 되기 때문에 비자발급에는 거의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 같다. 다만, 학교 수업과 비자 발급 일정이 아주 촉박하게 돌아갔었기 때문에 일정을 잘 챙겨야 하는 것만 유념하면 될 거 같다.

출입국에도 큰 문제가 없었으며 미국 입국 후에 인근 국가인 캐나다 방문이 1-20소유자의 경우 자유롭게 가능하였기 때문에 인근 국가 출입도 자유로운 편이었다. 올버니 지역이 캐나다와 인접하고 있어 캐나다 지역을 여러 번 방문하였는데 캐나다의 퀘벡이나 몬트리올 같은 경우 미국과 또 다른 유럽 느낌도 많이 간직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한번쯤 방문해 볼만한 도시라고 보인다.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올버니에서의 1년은 학업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생활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수업 내용에서 당장 활용 가능한 전문지식을 배우기는 힘들었던 것 같지만 팀원들과 함께 하는 팀 모임을 통해 토론하는 방법을 특히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미국에서의 1년간의 생활 동안 많은 미국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생활태도나 사고방식을 접하며 배울 수 있는 게 더 많

지 않나 생각한다.

그 외에 올버니 지역은 물가수준이 저렴하면서도 치안 등이 안정되어 있어 지내는데 불편함이 거의 없는 도시이고 방문 가능한 인근 도시(몬트리올, 뉴욕, 보스턴 등)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 있는 1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한다.

